

◇다한증 환자의 교감신경절제술후 교감신경 피부반응의 변화

김 오곤, 홍종면, 이석재, 홍장수, 이광래*, 김상규*

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.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실*

배경 및 목적 : 다한증에 대한 교감신경절제술은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. 다한증 환자의 교감신경절제술의 객관적 평가와 추적 관찰을 위해 수술 전후 교감신경 피부반응검사 [Sympathetic Skin Response, SSR]를 시행하였고 그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.

방법 : 다한증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교감신경절제술 전후에 Medelec Sapphire Plus 근전도 기기를 이용하여 교감신경 피부반응을 검사하였다. 환자는 양와위를 취하여 안정시킨 후 우측 정중신경을 전기자극하고 기록은 4 channel로 우측 손바닥, 좌측 손바닥, 우측 발바닥, 좌측 발바닥에서 동시에 기록하였으며 피부 온도를 같이 측정하였다. 총 12명중 10명의 수장부 다한증 환자는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T2-4, 1명의 안면부 다한증 환자는 T2, 1명의 족저부 다한증 환자는 후복막강을 통한 L3,4 교감신경절제술을 시행하였다. 2명의 환자에서 수술후 한달 후에 교감신경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다.

결과 : 임상적으로 12명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. 수술후 모든 환자에서 교감신경 피부반응의 변화를 보였고 12명중 9명[75%]에서는 교감신경 피부반응이 완전히 소실되었고, 나머지 3명에서도 잠복시간은 양측 손과 발에서 현저히 지연되어 나타났으며 진폭도 현저히 감소하였다. 수술 한달 후 검사에서는 수술 직후 검사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 피부 온도는 수술전 양쪽 손과 발에서 정상보다 낮았으며 수술 후 양측 손과 발에서 모두 상승하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으며 [$p < 0.05$], 발에서 보다 손에서 더 많이 상승하였다. 수술 한달 후 추적 관찰에서도 현저한 교감신경 피부반응의 잠복시간 지연과 진폭 감소가 있었다.

결론 : 다한증 환자의 교감신경절제술후 모든 환자에서 양쪽 손과 발에서 피부온도의 상승과 교감신경 피부반응의 변화를 보였고, 75% 환자에서는 교감신경 피부반응이 완전히 소실되었으며, 교감신경 피부반응검사는 다한증 환자의 교감신경절제술의 평가와 재발 등의 추적관찰에 쉽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.

책임저자: 홍 종면 (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) 발표자: 김 오곤 (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)